

안전교육일지

담당

원장

이주연

신명옥

일시	2024년 9월 16일 ~ 9월 20일(9월 3주)	참가대상	0세~2세 전체 영아, 보육교직원
안전 영역	재난	활동명	태풍은 무서워요
목표	태풍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.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.		
준비물	안전 동화 [태풍은 무서워요]		
활동 내용	[활동 1: 안전 그림책 관심 가지기] ① 안전 동화 [태풍은 무서워요]를 제공한 뒤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한다. (교사의 의도적인 상호작용 개입 없이 환경으로만 제공) ②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면 함께 탐색한다. - 이건 무슨 책일까? -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? - 바람이 강하고 무서워 보이네. -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? [활동 2: 안전 그림책 보기-무서운 태풍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] ③ 안전 그림책을 읽으면서 무서운 태풍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. - 번개가 번쩍, 천둥이 우르르 쿵쿵!/ 비가 쏟아 쏟아/ 바람이 휘이잉 휘이잉 - 찬이와 아빠가 밖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. - “아빠! 하늘이 화가 난 것 같아요.”/ “하늘이 화가 난 것 같은 날씨를 태풍이라고 해.” - 바람이 많이 불고, 비가 많이 내리고, 번개가 치고... - “아빠! 밖에 나가서 태풍을 보고 싶어요.” / “태풍이 올 때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.” - “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부러지고, 우리에게 떨어져서 몸을 다치게 할 수 있어” - 무서운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할까? 밖에 나가면 안 돼! - 아주 강한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는데, 이런 태풍이 불면 우리 몸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. [활동 3: 일상생활 속 안전교육 전달하기] ④ 바람이 세게 불거나 태풍이 올 때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		
지도상의 유의점	바람이 많이 부는 날, 밖으로 나가 풍선이나 보자기 등을 날려보는 등의 시연을 해볼 수 있다.		
평가	영아가 안전 그림책을 보며 태풍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. 태풍에 의해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표현해 주고, 이러한 이유로 태풍이 위험함을 알 수 있도록 했다. 영아와 함께 실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바깥놀이를 나가서, 보자기를 날려보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.		